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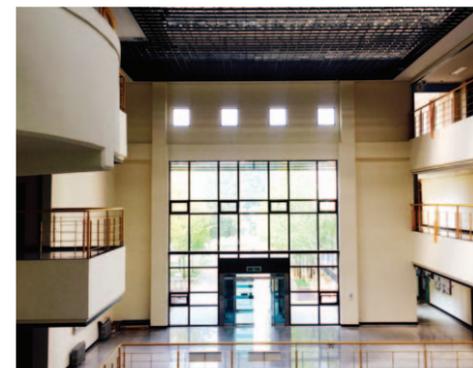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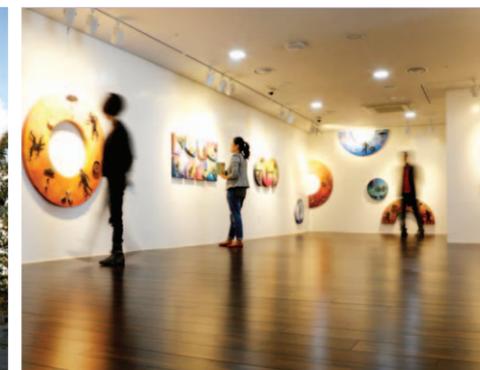
- 바론리튼 -



금오공대 VOL 174

소식

창조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특수목적 국립공과대학교로서
 국가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2015 가을캠퍼스 사진공모전 당선작
 ① 「폐기」 서종임 작 ② 「함께」 이병하 작 ③ 「끝혹은시작」 신동섭 작
 ④ 「뜻밖의휴식」 제민경 작 ⑤ 「진리, 창조, 정직」 강민구 작





CONTENTS + 174

04 Focus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 '대구·경북권 2년 연속 1위'

06 Issue

2015 Best HRD 우수기관 선정
금오공대, 교육중심 대학평가 국립대 1위
kit 갤러리, 기획展 개최
개교 35주년 기념 자랑스런 금오인상 수여
학생 작품, 기업 연계 상용화 추진

전공체험 프로그램 개최
산학기술창조관 기공식 개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개소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20 People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석권
2015 대학창의 발명대회 석권

22 People 교수

김성동 교수, 유공압건설기계학회 드라이브·컨트롤
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윤성호 교수, 우수강의 교수상
김태오 교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성공
이진덕 교수,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 선출

24 People 학생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016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 선정
K-디자인 어워드 워너 선정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대상 수상

26 kit News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행사 개최
자유학기제 운영 큰 호응
전공체험 통해 고교-대학 간 연계교육 강화
사랑의 김장 나눔
박성현 한기한림원장 초청 특강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인재양성교육
도서관, 2015 학술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안경환 前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특강 개최

온라인영어 학습시스템 활용 협약 체결
유럽 명문대학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에콰도르 주한대사, 금오공대 방문
한·불 대학 총장 포럼 주제발표
산학공동 통한 기술이전 협약 체결
학생 아이디어 작품 기술이전 성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동참
ICT 융합기술·교류 활성화 앞장

36 kit Love 발전기금

37 kit Love 약정서

39 kit Love 기탁하신 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1차년도 사업비 5억1백만원 확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정책 특수목적 분야 연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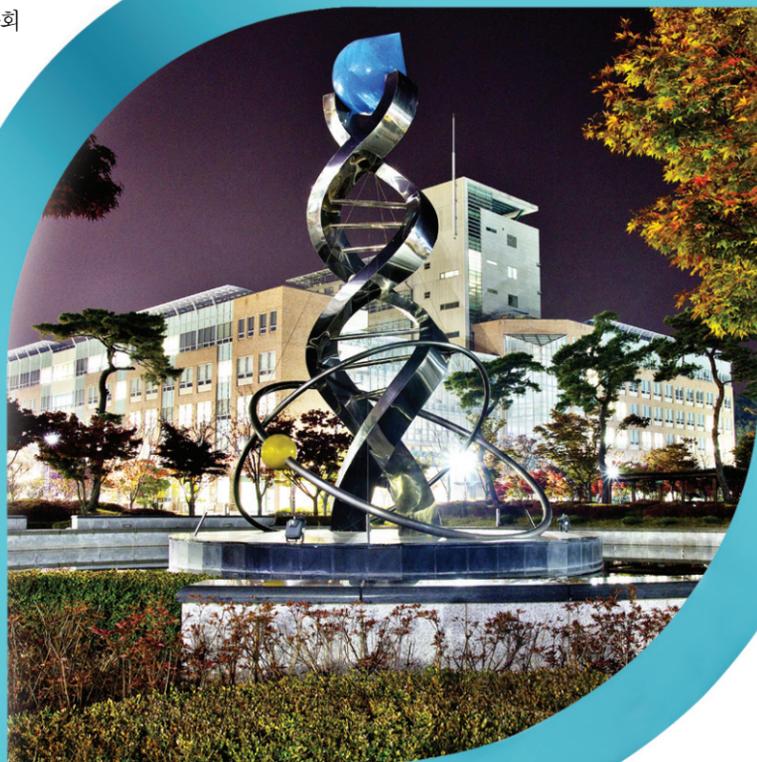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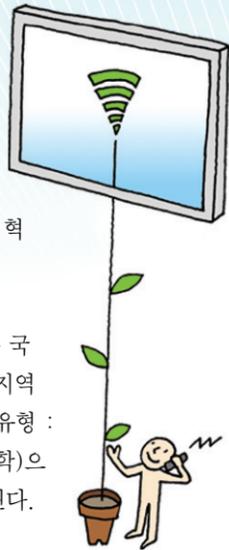
금오공과대학교가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1차년도 사업비 5억1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금오공대는 이 사업의 전신인 ‘2013 국립대학운영성과목표제’ 사업과 ‘2014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평가’ 사업까지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은 국립대학의 사명 및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이 대학 운영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규모 및 특성별로 4가지 유형(I유형 : 거점대학, II유형 : 지역중심대학, III유형 : 공학, 해양, 체육 등 특수목적대학, IV유형 : 교원양성 특수목적대학)으로 구분한 뒤, 3개 영역(국립대학의 역할·기능, 대학운영체제, 회계·재정)의 실적 및 지표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III유형에서 선정된 금오공대는 ▲국가정책적 특수목적 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선발·양성과 공헌활동(교육기부, 평생교육기회 확대)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대학 운영체제 효율화 추진 ▲대학회계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영식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의 사명과 역할을 인지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공대는 이번 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비롯해,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최우수, LINC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책사업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기간은 최장 3차년도까지 지속되며 매년 교육부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이다.



‘국·공립대 청렴도 평가’ 대구·경북권 2년 연속 1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전국 4위 계약·연구 및 행정분야 높은 평가 받아

금오공과대학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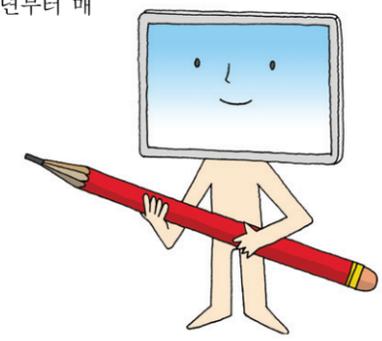
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25점(평균 5.88점)을 받아 전국 4위, 대구·경북 지역 대학 중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0,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됐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①계약분야 ②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금오공대는 계약분야 청렴도 7.63점(평균 7.48점),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5.95점(평균 5.54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6.25점으로 ‘청렴한 대학’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식 총장은 “우리 대학이 이뤄낸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성과는 투명한 행정에 기반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총 36개 국·공립대학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5 Best HRD 우수기관 선정



2012년에 이어 재인증,
활발한 인적자원개발
투자 기대

활발한
인적자원
개발 > 재인증



HRD

Best

하고 있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2015년 금오공대를 포함해 총 15개 기관이 재인증을 받았으며 14개 기관이 신규로 선정됐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교육부가 2006년부터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이미 지난 201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금오공대는 3년의 인증기간 경과 후 재심사에 통과돼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관에는 향후 3년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방문 지원, Best HRD(Best HRD=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 로고 활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금오공과대학교가 국가 인적 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201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부·지자체·대학,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금오공대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선정

3D프린터 환경 조성 '창업 활성화' 촉진 기대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실 연계 구축

금오공과대학교가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5 테크숍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테크숍(Techshop)구축 지원사업'은 창업 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3D 프린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시제품 제작지원 등의 창업교육을 통해 관련 제조분야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창업 교육 센터(센터장 최성대)는 3D프린터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테크숍 사업의 일환으로 3D프린터 활용·모델링 교육이 가능한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실을 구축해 지역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오공대, 교육중심 대학평가 '국립대 1위'

중앙일보 평가, '신입사원 뽑고 싶은 대학' 서도 4위
창업교육, 학생 지원활동 성과 '두각'



에서도 40개 대학 중 전체 6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중심 대학평가 부분에선 10개 국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금오공대는 공학계열 대학평가 가운데 '졸업생 창업 활동'과 '창업교육 비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교육중심 대학평가 부분에서는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부분과 '창업교육' 비율이 전국 4위와 5위에 올랐으며, 평판도 부분에서도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4위, 특성화 우수대학 4위를 차지하며 국내 유일의 특성화 공과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한편, 종합평가는 4개 계열 이상 존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금오공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오공과대학교가 '2015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교육중심 대학평가 부문에서 국립대학 1위에 올랐다.

금오공대는 이번 평가에서 '공학계열 대학 평가' 부문에서 전국 63개 대학 중 24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중심 대학평가' 부문

금오공대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선정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주관 시행 ICT 민·군 융복합 연구 활성화 기대

금오공과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015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 kit융합기술원장 겸임)는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경북 지역의 ICT 민·군 융복합 연구와 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박사 연구원들이 학력 단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4년 설립된 금오공대 ICT 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지원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연구중심의 R&BD전문센터다.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과 더불어 구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북 및 구미지역의 ICT융합 산업화를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5. 10. 02. 강태웅 展



2015. 09. 07. 주람 展



kit 갤러리, '기획展 개최'

캠퍼스 열린 공간 활용, 문화체험 기회 '호응'

'kit 갤러리'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공간을 위해 2016년에도 다양한 기획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kit 갤러리아는 연면적 410㎡에 내부공간으로 갤러리, 북스토어,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외부공간으로는 다목적 잔디광장(180㎡)과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어 음악회 및 소공연 등이 열리고 있다.

금오공대는 대학 내 야외공연장, 본관 대강당 등에서 구미아시아 연극제, 클래식 음악 공연, 국악 한마당 공연 등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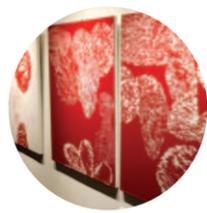
방대석 금오공대 학생처장은 "캠퍼스의 열린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가을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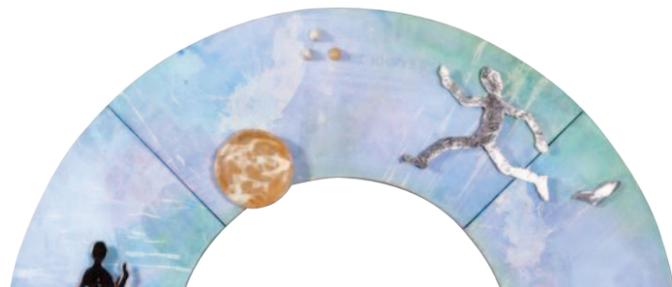
2016. 01. 08 윤정렬 展



2015. 11. 12. 민웅기 사진展



2015. 12. 14. 박철호 展



‘개교 35주년’ 기념

“ 자랑스런 금오인상 수여 ”

사회 각 분야 ‘동창회’ 추천 및 선정
총동창회 · 최경 · 원우회 공동 주최
동문 상호간 우의 다져, 발전기금 기탁



개교 35주년 기념 ‘금오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개최됐
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학과 국가 산
업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동창회로 부터 추천받아 ‘자랑스러
운 금오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 단체인 총동창회(회장 서임교), 최고경영
자과정총동창회(회장 권영희), 석박사원우회(회장 원종욱),
발전후원회(회장 신재학)를 비롯해 김태환 국회의원, 윤창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류한규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동문과
지역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문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금오
인상’에는 △전병주 청와대 경호이사관 △서영준 (주)이수패
타시스 공장장 △정인 (주)그린텍시스템 대표이사 △김원일
(주)원바이오젠 대표이사 △김용성 삼성전자 차장 △송원호

제일정보통신(주) 대표 △배화
찬 (주)비에이치씨유통 대표이사 △신기호 아주전설
대표 △안현근 (주)중부신문 취재본부장 △황중국 (주)프로
템 대표이사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 인사에게 공
로상을 수여하고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로상
수상자로는 △윤종호 구미시의원 △유해귀 (주)에스에스뉴테
크 회장 △배동화 IBK기업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배광석
NH농협은행 동구미지점장 △김대운 구미시청 법무규제개혁
계장 △김진태 동양전자초자(주) 총무부장 △오길선 금오공
대 취업지원본부 사업부장 등 7명이다.



자랑스런
금오인



대학 발전에 헌신한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금오인상’을 시상했다.

그 중 지역
중소기업인 (주)에스에스뉴테크(회장
유해귀)와 (주)대경테크노(대표이사 곽현근)에
서 최경과정과 석박사원우회 이름으로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서임교 금오공대 총동
창회장은 “동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금오인의 밤 행사를 통해 동문 상호 간 우
호와 협력의 장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지
역 사회 발전을 위해 동문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특수목적 공과대학으로서 지역 및
국가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오늘날의 금오공대는 동문들
이 스스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창조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창
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그동안 총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석·박사원우회 등 각 동창회가 이원화해서 실시해 온 동문
행사를 처음으로 일원화해 실시함으로써 ‘금오인’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취지를 공
감한 각 동창회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 모금에 나섰으며, 대
학 동문과 교직원, 지역 기업이 총 3억3천950만 원의 발전기
금을 기탁해 금오공대의 발전을 기원했다. 단체별(총동창회·
동문기업 포함)로는 총동창회 7천만 원을 비롯해 최고경영자
과정총동창회 1억1천2백만 원, 석·박사원우회 3천5백만 원,
IBK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5천만 원, 농협은행 동구미지
점 5천만 원, 금오공대 교직원 2천2백50만 원을 기탁했다.



학생 작품, 기업 연계 상용화 추진

LINC사업단, 'C-Idea EXPO 2015' 개최 기술사업화 MOU 체결, 창조경제 확산 기여

금오공과대학교가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학생 창의 작품 전시회를 갖고, 산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학생 작품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C(Creative)-Idea EXPO 2015'를 개최했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단장 채석)이 금오공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용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최수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차중범), 대경권기업성장지원센터(센터장 김사홍)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금오공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금오공대 재학생 및 교직원, 구미 지역 초·중·고 학생 등 3천2백여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기간 동안 세계발명혁신대전 금상과 세계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 드럼세탁기 내부 청소 시스템', 2015 말레이시아 국제발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사진을 인쇄 후 액자로 만들 수 있는 인쇄용지' 작품 등 총 288개의 학생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 작품에 대해서는 대경권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사업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업체와 연결해 향후 취업과 연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1개 작품이 삼화엔지니어링(대표 최종갑) 등 15개사와 현장에 서 산업체와 직접 '학생작품 기술사업화 MOU'를 체결했다.

이밖에도 금오공대 공학혁신센터의 'kit Engineering Fair 2015' 행사 동시 개최, '사이버 옥션' 운영을 통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사업 연계, 변리사 투입을 통한 특허 출원 도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작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에 앞서, 금오공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독일 기업 이노베티스(Innovatis, 대표 Hardy Cruz Pinto)와 MOU를 체결했다. 이노베티스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 불리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수상한 금오공대 류미선 학생(산업공학과 석사, 24세) 작품과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오공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인도, 러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이노베티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창의 작품의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체험 프로그램' 개최

대구·경북지역 학생 500여명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



금오공과대학교가 11월 20일(금), 오후 1시, 대구 및 경북지역 12개 고교 1·2학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금오공대 '전공체험 프로그램'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2개 전공과 관련한 학과 및 교육과정 소개, 취업전망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실 탐방 등 교육과정의 일부를 해당 학과에서 직접 체험하며 향후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금오공대 지광환 입학관리본부장은 "간접적인 설명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이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을 살펴보고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경험은 향후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 지도를 위해 전공 교수가 지역 고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공특강 및 입학설명회'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전공 소개와 특성, 향후 진로설정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및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시간도 갖는다.





산학기술창조관 기공식 개최

금오공과대학교가 산학협력 허브 구축을 위한 산학기술창조관 건립 기공식을 11월 18일 오후 3시, 교내 신축공사 현장과 청운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산학기술창조관은 연면적 8,237㎡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비 125.8억원, 대응자금 31.4억원을 포함해 총 157.2억원이 투입되며, 2년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기업부설 연구소, 국책사업단, 학생 창업동아리 등이 입주하여 신기술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정병운 경상북도부지사, 윤창욱 경북도의원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한규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진한 경북창조혁신센터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학기술창조관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구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는 청사이전을 통해 경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놓고자 한다.”며 “오늘 기공식이 엘지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산학기술창조관 건립은 연구 및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와 신기술창조의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경제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개소

교육 및 시제품 제작지원 통해 창업 활성화
현장맞춤형 3D 프린팅 실무프로그램 운영



3D프린터 교육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가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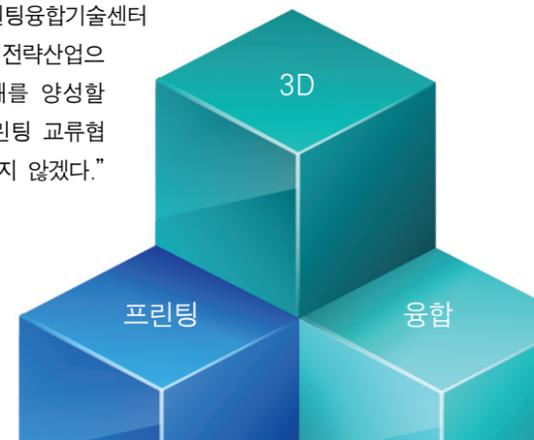
1월 18일 개소식을 가진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는 3D프린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15년 3D프린팅 보급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따른 것이다.

금오공대 LINC육성사업단(단장 채석)이 주관한 이번 사업을 통해 문을 연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는 3D프린터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기업과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3D 프린팅 실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은 그동안 3D프린팅 공동체분과위원회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등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3D프린팅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꾸준히 양성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영형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장은 “향후 3D프린팅 산업은 융·복합서비스를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학생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3D프린팅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3D프린팅산업협회 국연호 회장은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는 설계기획부터 가공 및 양산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원스톱 3D프린팅 교육환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3D프린팅 전문교육 니즈 해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향후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교류협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열려

학사 1,038명 등 1,236명에게 학위 수여
축하 릴레이 인터뷰 영상 '희망의 메시지'



2월 19일 오후 2시, 본관 강당에서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038명, 석사 121명, 박사 24명, 최고경영자과정 53명 등 총 1,23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부 전체 수석을 차지한 기계시스템공학과 한병헌 학생이 27명의 성적 우수자들을 대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계공학과 김성남 외 1명(경상북도지사 포상),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조미란 외 1명(구미시장 포상), 전자공학부 이선미 외 1명(구미시의회의장 포상) 등에 대한 대외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48세의 늦은 나이에 만학도로 입학해 학위를 받게 된 기계시스템공학과 4학년 김태겸(52세, 삼경정밀 대표)씨는 졸업 후에도 금오공대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태겸 씨는 "집안 형편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을 자녀들의 권유로 늦게나마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일과 사업을 병행하느라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학위를 받게 된 어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뻛고, 대학원에 진학해 더욱 체계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오공대는 올해도 교수와 졸업생 대표, 총동창회장 등의 릴레이 인터뷰를 담은 영상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입생 1,321명, 희망찬 새 출발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2월 23일 교내 체육관에서는 '2016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번 입학식에는 학부 신입생 1,321명을 대표해 기계공학과 수석을 차지한 이봉규 학생이 신입생 선서를 했으며, 14개 학부(과)별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김영식 총장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의 희망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올해부터 도입되는 기숙대학 제도인 K-RC를 통해 자기 주도적 리더십과 인성을 함양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 이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틀간 이루어졌다. 신입생들은 교육 방향의 기초자료 수합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신입생 인·적성 검사 실시 후, 대학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학부(과) 소개 및 인성특강 등을 받았다.



금오공대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금시덕 신임 회장 “동문화합으로 모교 발전 초석”
서임교 회장 “함께 同苦同樂한 모든 분에게 감사”



금시덕
신임 총동창회장



서임교
전 총동창회장



금오공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교례회가 2월 20일, 동문 및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청운대에서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 교수 및 우부선 전임 회장, 동창회 회원들이 참석해 동창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14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금시덕 신임 회장은 “모교인 금오공대가 세계 속의 kit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총동창회는 kit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금 회장은 이와 함께 “총동창회의 중심은 동문”이라며 “상호 화합과 친목을 위해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낮은 자세로 봉사에 임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 동안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 고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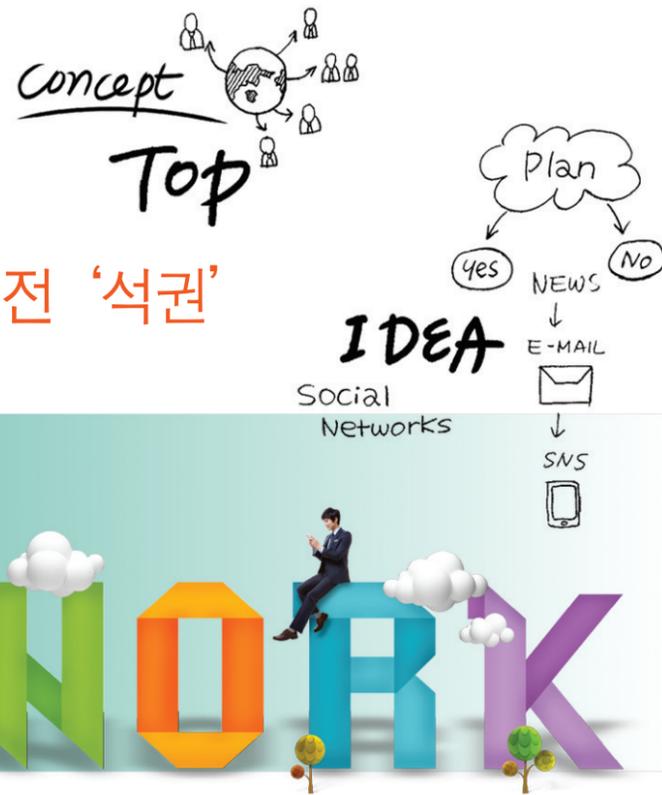
모교와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동창회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식 총장님과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임하는 금시덕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과 회원이 똘똘 뭉쳐 최고의 동창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고동락 해준 동문과 모교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대학 총동창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의 순간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며 “모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준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임교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동문 상호간의 우호와 협력의 장이 되어

금오공대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석권'

가족회사 (주)원바이오젠, 기업부문 '대통령상' 영예 교수부문 이종찬 교수, 직원부문 권인자씨 장관 표창



'2015 대학창의 발명대회' 석권

국무총리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 위한 교육환경 성과



기계설계공학과 이종찬 교수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업부문 대통령상을 비롯해 교수부문과 직원부문에서도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중소기업청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금오공대는 이종찬(기계설계공학과) 교수가 기술혁신 유공자 교수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권인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주무관이 직원부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가족회사인 (주)원바이오젠(대표이사 김원일)은 기업부문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교수부문의 이종찬 교수는 중소기업 예로 사향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과 공작기계산업 등 다방면의 많은 기술 지도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낳은 성과가 인정됐다. 이 교수는 25년간 금오공대 교수로 재직하며, 기계분야 중정밀가공 분야의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 15건의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달성했다.

또한 권인자 주무관은 산·학·연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원바이오젠은 메디컬 소재를 국산화하고, 신규고용창출 53명, 4년간 수출액

300만불 달성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해외 3개국 수출 길을 열어 국내 의료산업의 수출 길을 여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앞서 금오공대는 2012년 제13회 대회에서 박상희(기계공학과)교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서도 노재승(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혁신하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창의인재, 대한민국 창조에너지'를 슬로건으로한 이번 대회는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혁신사례 공유의 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오공과대학교가 '2015 대학창의 발명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한 수위의 입상 실적을 보이며 대회를 석권했다.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학창의 발명대회'는 전국 127개 대학에서 4,284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됐다. 이번 대회에서 금오공대는 국무총리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비롯해 지도교수상과 발명동아리 단체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 대회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

국무총리상은 기계공학과 박승민, 서정복, 오신일 학생이 '안전성을 향상시킨

자전거 클릿슈즈'를 출품해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자기력을 이용해 자전거 신발 밑창과 페달을 결합시킨 클릿슈즈에 대한 것으로, 위급상황 시 전기 발전이 중단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클릿을 교체할 필요가 없이 비용 절감 효과도 높다.

금오공대는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이지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김형준·김준규·정주혜), 특허청장상(곽성실·이정빈·김소진)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에 해당하는 대한전자공학회장상(이상욱·전창민), 대학금속재료학회장상(정동근·김진민)을 함께 수상했다. 이밖에도 장려상에 해당하는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수상한 26개팀 중 5팀이 금오공대가 차지했다. 금오공대는 이

러한 성과로 2명에게 주어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도교수상을 김경훈(기계공학과) 교수가 수상했으며, 단체상 부분에서도 금오공대 발명동아리 거북선신화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2015 대학창의 발명대회는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 권리화·사업화를 지원하고,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원바이오젠 김원일 대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우는 힘, 명품 교수진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이끌어주는 행복교육! 당신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성동 교수 '유공압건설기계학회 드라이브·컨트롤 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서보 밸브 대역폭 주파수의 측정 방법 개선에 기여”

김성동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가 유공압건설기계학회에서 주최하는 '드라이브·컨트롤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드라이브·컨트롤 학술대회는 국내 유공압 건설기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이 대회 우수 논문상은 사전에 엄정한 서류 심사 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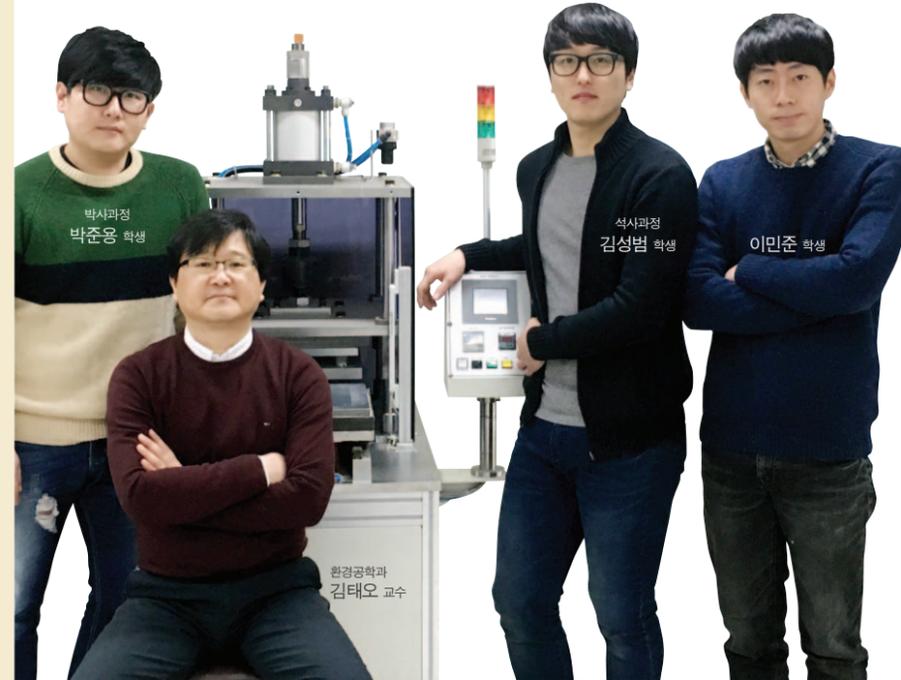
수상 논문명은 실린더를 이용한 서보 밸브 대역폭 주파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Bandwidth Frequency of Servovalve based on Metering Cylinder)로 유공압건설기계 분야에서 핵심 부품인 서보밸브의 동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까지 서보밸브의 동적 기민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대역폭 주파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서보밸브에 설치되어지는 실린더의 속도 신호 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보밸브 본연의 동적 거동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며 왜곡되는 단점이 존재 했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에서는 낮은 관성과 우수한 마찰을 얻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을 적용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 했으며, 측정용 실린더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성동 교수는 “연구를 도와준 연구원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실용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동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순수 국내파 학자로서 대우중공업에서 현장 실무 경험과 능력을 쌓고, 1988년 이래로 금오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줄 곧 유공압건설기계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압력 신호를 이용한 유량 제어용 방향 밸브의 대역폭 주파수 측정 장치 및 방법’ 과 ‘검단 및 로울링 작업용 유압식 직물송출장치’ 등 유공압 분야 의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윤성호 교수 우수강의 교수상

기계공학과 윤성호 교수가 2015년 9월, '우수강의 교수상' 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공학교육학회에서 국내 공학교육 혁신 에 모범이 되는 우수강의 교수에게 주어진다.

윤성호 교수는 96년부터 금오공대 기계공학과에 재직하면서 학생처장,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을 역임하고 국내 학회 임원, 구 미시 설계 자문 및 국제화 추진 활동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 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역임하면 서 공학도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과목 전산지원 시스템,

공학기초학력 온라인 평가 시스템 등을 개발 했고, 공학기초학습센터와 One-stop 공학 설계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문공학인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국공학교육학회는 우수 공학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의 발전과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매년 공학교육학술대회 개최와 정기적으 로 학회지 및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금오공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성공

환경공학과 김태오 교수 연구팀 성과
에너지·연료분야 권위 저널, '저널 오브 파워 소스' 온라인판 게재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태오 교수의 태양전지연구팀이 새 로운 광반응물질을 개발하여 이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 sensitized solar cell)에 적용, 전기연료를 생산해 내는 연구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및 연료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인 저널 오브 파워소스(Journal of Power Source, 에너지 및 연료분야 상위 6% ; IF 6.217) 온라인판에 12월 30일자로 게 재됐다. 주 저자는 박사과정 박준용 학생, 교신저자는 김태오 교 수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란 염료에 태양광을 조사하여 들뜬 상태의 전자가 전지내부를 순환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방 식이다. 그동안 질소 및 금속을 이용하여 염료감응 형 태양전지를 제작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합성 된 질소와 구리를 이산화 타이타늄(TiO2)에 도핑 시키는 방법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번 연구 발 표 당시 상당히 높은 연료 효율(11%)이 달성되 어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연구팀에서는 최적의 금속 첨가량을 규명하였 으며 이번에 개발한 광반응물질은 물리적, 전기적 특 성평가로 그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이점을 살려 향후 실용화 연구를 지속한다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분야 뿐 아니라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에서도 흡착제 및 광촉매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진덕 금오공대 교수,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 선출

“학술활동, 지리·공간정보 제공에 최선”

토목공학과 이진덕 교수가 한국지리정보학회 차기회장에 선출됐다.

(사)한국지리정보학회는 11월 6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 GIS(지리정보시스 템)심포지엄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진덕 교수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2년간이다.

1997년에 창립된 (사)한국지리정보학회는 전국에 1,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일본 GIS학회와 대만 지구관측그룹(TEGO) 등과 매년 정례적인 학술 교류를 갖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집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이진덕 교수는 “한국지리정보학회는 그동안 춘·추계 학술대회,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리 정보,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써 왔다.”며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목공학과 이진덕 교수



이상욱 학생,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발명·창업분야' 특화 인재, 창의·인성 교육 '결실'
재능기부 봉사에 앞장 '3번째 인재상' 쾌거

기계시스템공학과 이상욱(남/28세) 학생이 '201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 한국과 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금오공대는 2012년 하재상(전자공학부 졸업), 2014년 최현진(소재디자인공학과 졸업)씨에 이어 또 한명의 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이상욱 학생은 발명과 창업분야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보이며 이번 인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상욱 학생은 '제50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2015 경북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특허청장상), '2015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 본상(은상) 및 러시아발명협회 특별상, '2015 세계발명혁신대전' 금상 및 은상, 세계발명협회 특별상, 루마니아 발명가 교류회 특별상 등 국내·외 발명 대회에서 수위에 올랐다.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봉사 활동에도 힘써온 이상욱 학생은 초등학교 발명캠프, 중학교 학습 멘토링, 보육원 학생 멘토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발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창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욱 학생은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원가를 만드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에서 다양한 발명품들을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을 위한 '창의성'과 제품의 시장 타당성을 보는 '판단력'이라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인력양성사업단 등 다양한 부서의 관계자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하여 향후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대학부문 42명의 학생 가운데 경북에서는 4명의 수상자가 배출됐으며, 시상식은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전자공학부 박민주 학생, '2016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 선정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박민주 학생(여, 22세)이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에서 실시한 '2016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Power Engineering School)'의 겨울캠프 성적 우수학생으로 선정됐다.

2월 23일 금오공대를 방문한 한전기술 이재규, 이승중 전임교수는 박민주 학생에게 장학금 3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이하 PES 캠프)은 전력기술분야의 미래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으로 한전기술에서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전국 주요 34개 대학의 이공계열 2~3학년 대학생 63명이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참가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PES 겨울캠프를 수료한 박민주 학생은 학습 및 워크숍 평가, 출석점수 등을 합산해 선정된 10명의 장학생 가운데 1명에 포함됐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금오공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부산대, 아주대, 건국대, 강원대 등 10개 학교 학생들이다. 캠프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전문특강을 포함해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견학, 인문학 특강 등이 학습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민주 학생은 "캠프 기간 동안 전공을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발전소 종합 설계 분야의 관련 강의와 견학을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를 실현하게 된 것 같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공대는 지난 2014년에도 박진욱 학생(신소재시스템공학부)이 상위 10명에 들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도전과 혁신으로 뚝뚝 뭉친 'KUMOH 人'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산업공학부 김호준 학생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선정'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김호준(남, 25세) 학생이 국제 디자인 대회인 '2015 K-디자인 어워드(K-Design award)'에서 '위너(Winner)'에 선정됐다.

김호준 학생은 20개 국가 1,038개의 작품이 출품된 'Product' 부문에 참가해 당당히 선정됐다. 이 부문에서는 김호준 학생의 작품을 포함하여 128개의 작품만이 당선됐다. 심사위원은 전 세계 현직 디자이너 2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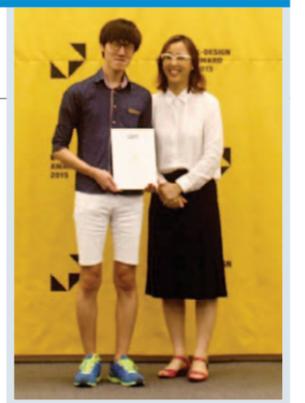
김호준 학생의 작품명은 'Push&Standing Umbrella'다. 우산을 누르면 세워진다는 의미로, 우산 꼭지 부분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했다. 우산의 끝부분에서 삼각대 형태의 보조 장치를 설치해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이다.

김호준 학생의 아이디어는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에서 운영하는 치즈 프로그램(Cheese Program, www.cheeseprogram.com)의 활동 결과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치즈(Cheese: Creativity, Human, Emotional Experience, Solution, Evaluation)프로그램은 디자인공학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리서치, 아이디어,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을 특허, 공모전, 상품화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 창조를

체험하고 습득하는 특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김선아, 조성주 교수(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의 아래 학생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호준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치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대상 수상

금오공과대학교 학군단 학생으로 구성된 구민석(경영학과, 4학년), 조재영(기계공학부, 4학년), 선도우(전자공학부, 4학년) 학생이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대상을 수상하여 방위사업청 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는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난해 4월부터 8개월동안 활동하였다.

구민석 학생을 비롯한 금오공대 학생들은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방산업체 현장탐방' 등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 현장을 찾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과 활동들을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구민석 학생은 "이번 서포터즈를 통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널리 알린 보람이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로 보여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금오에서 배우고 세계에서 펼쳐라!”

●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행사

토목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이재관)가 지난해 10월 17~18일, 양일간 “2015 금오공과대학교 토목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구미 컨트리클럽, 금오공대 교내, 금오산 잔디 광장과 금오산 호텔 등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행사로 약 5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함께하는 “2015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17일 오전 열렸으며, 두 번째 행사로 “입학 30주년 기념 85학번 홈커밍 데이”가 신평동 및 양호동 캠퍼스에서 열렸다. 동문들은 학창시절을 보낸 신평동 캠퍼스 교정 곳곳에 남아 있는 발자취와 옛 기억들을 떠올리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금오산 잔디 광장에서는 “2015 토목인의 날”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토목공학과 동문 및 가족, 교직원과 재학생은 물론 구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Festival 형태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였다.

“함께 만든 35년, 100년을 향한 비상”이라는 개교 35주년 슬로건 아래 구미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무대에서의 행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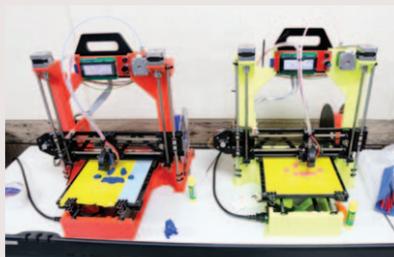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85학번 및 가족들에게 30년 후배들이 15학번 후배들이 꽃다발을 전달하여 선·후배 간 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85학번 동문들이 준비한 선물을 은사에게 전달하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이후, 같은 날 금오산 호텔에서 진행된 “개교 35주년 기념 금오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동문들의 단합된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각 학번 동기 모임 등을 통해 우애의 시간을 보냈다.

이재관 토목공학과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동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 행사를 잘 개최했다.”며,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운영 '큰 호응'



도내 9개 중학교 500여명 참여

'체험중심 현장 교육' 통해
창의적 사고력 향상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금오공대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의 2015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된 6개 프로그램에 구미중, 선주중, 송정여중, 순심중, 안덕중, 오태중, 옥계중, 옥계동부중, 현일중학교 등 도내 9개 중학교 500여명이 참여했다.

금오공대는 중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교육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3D프린팅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창의 건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지각력과 입체적 사고력을 함양했다.

특히 아이디어 발상법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오공대 학생 창의발명 동아리 '거북선 신화'와 전자회로 연구동아리 'ECC' 학생들이 멘토링으로 함께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창의 공작 팀 활동을 지원하며 중학생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금오공대 전자공학부에서 시행하는 과학기술 강연과 산업공학부의 인간중심 디자인 강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계설계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등 각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행될 '진로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오공대 이승희 기획협력처장은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훌륭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공대는 앞으로도 경북도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홈페이지인 '꿈길'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공체험 통해 '고교-대학 간 연계교육' 강화



전공체험 및 과학경진대회 열어

지역 고교생 200여명, 전공
체험 활동 '호응'

'사랑의 김장 나눔'



대학 구성원 정성 담은 675포기 김치, 지역 사회복지시설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

지역사회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이틀간 금오공대 테크노관 및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구미고, 경주고, 금오고, 선주고, 오상고, 현일고, 형곡고 등 지역 고교 1, 2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금오공대 특성화 사업단 가운데 하나인 융합형 프로 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 사업단(단장 홍성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 탐색을 통해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대학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소개와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소질 탐색을 위한 체험 기회를 가졌다.

전공체험과 더불어 과학상자 및 로봇키트를 이용해 RC카를 제작하는 과학경진대회에서는 ▲디자인대상(현일고등학교 김정은, 정시은, 이수경) ▲스피드 대상(구미고등학교 김시형, 이종국, 강태원) ▲밀어내기 대상(구미고등학교 복진성, 이재혁, 한민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행사에는 30여명의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고교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며 고교-대학생 간의 교류 시간도 가져 연계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전공체험 행사에 참석한 김민우 학생(구미고 1년)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론과 실기를 함께 병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전공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오공대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지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숙희),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스님)에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담은 675포기의 김치를 전달했다. 금오공대 학생처(처장 방대석)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일 김영식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직원, 재학생 80여 명이 직접 참여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금오공대가 연말이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에서 준비한 재료로 학교에서 직접 담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만들어진 김치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금오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및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됐다.

“과학기술 기반한 창의 인재” 양성해야



금오공대, 박성현 科技한림원장
초청 특강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글로벌
미래 비전’ 주제

“21세기 글로벌 세계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적 인재를 슬
기롭게 양성해야 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1월 6일, 교내 글로벌관에서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과 우리의 글로벌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원장 김동성)에
서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 창의력을 제고하고 미래 이정
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현 원장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따른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지구와
인류의 현안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원장은 선진 한국을 지향하려면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고, 안보·언론·교육의 과학화를 추구하며 전
문성이 강화된 정부 조직을 꾸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기계시스템 3학년 박종혁 학생(남/25세)은 “공학도로서 글로벌
미래 비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현 원장은 한국통계학회 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 한국지속가능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한국과
학기술한림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양성교육”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 위한
수료식 개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에서 교육 전반을 주관한 “글로벌 소프트웨
어 전문인재양성교육 과정 수료식이 지난해 8월 29일 개최됐다.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번 교육은 국내 우수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업
고등학교와 금오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소속의 교수와 국내외 박사과정 연구원이 C & C++컴퓨
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
후 우수한 학습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게 국내 우수기업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와 영감
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여학교
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도서관, 2015 학술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 및
모바일도서관 체험 진행

안경환 前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특강’ 개최



금오공대, 졸업 예정 학생
대상 ‘인성교육’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관장 임재권)은 전자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 학
술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도서관 2층 로비와 금오마루에서 개최된 ‘2015 학술전자정보박람회’는 도서관
에서 서비스 중인 전자책을 비롯해 사이버 강좌, 오디오북, 전자저널, 멀티미디어
등의 이용법을 안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학생과 교직원
350여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학의 연구와 학습에 꼭 필요한 학술자료인 국내·외 전자저널과 교보, 예
스24, 우리전자책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YBM시사, 다락원, 뿌리영어 등 어학관
련 사이버강좌의 ‘모바일 도서관’ 체험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학술전자정보박람회는 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전자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자료 소개 및 체험을 통해 전자책, 사이버강좌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전자 자료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제4대 국가인권위
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전 위원장을 초청 ‘인권 특강’을 실시했다.

금오공대 그린화학소재 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윤관한)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인권이 자라는 사회’를 주제로, 지난해 10월 21일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열렸
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은 평소 공학도로 접하기 힘들었던 인권의 본질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인권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심도 있는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인권 의식은 좌·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
춰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소수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인권이며, 모든 종교의 가르
침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세상의 균형이 갖추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주선한 정인희 교수(화학소재융합학부)는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에게는 사뭇 낯설 수도 있는 인권의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길 바란다.”며, “사
회 진출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고 싶었다.”고 특강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안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
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한편, 그린화학소재 창의인재양성사업단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화학 소재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특히 체험형 인성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알찬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영어 학습·평가시스템' 공동활용 협약식 개최



자체개발 신입생 맞춤형 영어 학습 시스템 KOLLA 개발 9개 대학과 공동 활용 추진

금오공과대학교가 2월 24일 온라인 영어 학습 및 평가시스템(KOLLA)을 타 대학과 공동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금오공대 김영식 총장, 신경욱 kit창의교육원장 및 건양대학교 외 8개 대학의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OLLA 시스템에 대한 시연 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약을 통해 향후 학부교육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KOLLA(kit Online Language Learning Application) 시스템은 금오공대가 신입생 기초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ACE 사업비로 자체 개발한 영어 학습 및 평가 시스템이다. 2012년 ACE 사업에 선정된 금오공대는 학부교육 선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영어 학습을 위해 자체 개발된 결과가 KOLLA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ACE 사업의 성과 확산과 공동 활용을 위하여 9개 대학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유럽 명문대학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프랑스 등 3개국 대학 및 KIST 유럽연구소 방문

국제교류 사업 일환으로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소재 대학 및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기술분야 협력 활성화와 연구 및 학생 교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레오나르도 다빈치대학(Pole Universitaire Leonard de Vinci), 독일의 KIST 유럽연구소, 이탈리아 로마바이오메디컬대학(The Biomedical Campus University of Rome)을 방문해 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신수용 국제교류교육원장 등과 함께한 김영식 총장은 이들 대학의 주요 교육 및 산학연 시설을 시찰하고, 인적 교류와 연구협력을 통해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로마바이오메디컬대학(총장 Dr. Felice Barela)을 방문, 전자의료 및 바이오 엔지니어링 관련 융합 분야의 학생·교원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대학 최초로 이탈리아 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총장은 프랑스 및 이탈리아 2개 대학 교류에 이어, 독일 KIST 유럽 연구소를 방문하여 스마트 팩토리 및 의료 IT 분야 관련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원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식 총장은 "유럽대학과 학생, 교원의 상호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기적 학생·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주한대사, 금오공대 방문



학생 및 연구 분야 활발한 교류 기대

에콰도르(Ecuador)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Oscar Herrera Gilbert) 주한 대사가 10월 8일, 금오공과대학교를 방문해 학생 및 연구 분야 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에콰도르 대학과 금오공대 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학생 및 학술 교류 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됐다.

금오공대는 현재 에콰도르 학생 4명(대학원 석사과정 1명, 학기제 학부 교환학생 3명)이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올해 4월, 에콰도르의 상위권 공과대학으로 평가*받는 국립폴리테크닉대학(National Polytechnic School)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후 처음으로 교환학생 제도가 추진됐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카 에레라 대사는 김영식 총장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 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이 양국 간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 주한 에콰도르 대사(1963년생)는 과야킬 산티아고 가톨릭 대학(경제학 전공) 졸업 후, 2008년 에콰도르 대통령 자문위원을 거쳐 2014년 아시아 지역 총괄 대사를 역임했다.

*4 International Colleges & Universities 사이트 기준 2015년 에콰도르 대학 웹랭킹 5위

"청년 고용·취업, 정부, 산·학 협력으로 해법"



"대학교육과 인재양성" 주제 발표

김영식 총장이 한·프랑스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된 '2015 한-프랑스 대학총장 포럼'에서 '한국의 대학교육과 인재양성'의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양국 대학 간 협력방안 및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2015 한-프랑스 대학총장 포럼」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김영식 총장은 지병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과 장-루 샬즈만(Jean-Loup Salzmann)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양국 대학총장 및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한국 대학 총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양국이 고등교육과 연구·기술 분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올해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열리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대학 총장과 고등교육 관계자, 그리고 교육부 및 대교협 관계자 150여명은 한국과 프랑스의 고등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 인재양성 방안,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등 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청년 고용 및 실업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대학,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학은 대학교육의 유연화를 위해 다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학사운영을 통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며, "양국 대학 총장들이 주축이 되는 포럼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학공동연구 통한 기술이전 앞장



링크사업단, 9개 과제 기술이전
실시

산학공동연구 성과로 나타난 기술이전에 대한 협약을 금오공대 kit 디자인스튜디오에서 체결했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단장 채석) 주최로 열린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식'에는 금오공대 산학공동연구 책임교수를 비롯해 (주)디오시스(대표 이승현) 외 8개 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LINC사업단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현재 학생 캡스톤 디자인사업화 분야를 비롯해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분야 등 11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9개 과제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3천 6백만원의 정액기술료와 1천만원의 경상기술료 수익 등이 창출되어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체의 LINC사업 참여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을 통해 연계되는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참여 등 상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오공대 LINC 사업단은 지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4차년도 사업은 지역산업과 밀착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이전 등 실질적 산학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 아이디어 작품 기술이전 '성과'



총 10개 작품 4천 2백만원
'기술료 창출'

창조경제 확산과 학생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작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이 1월 26일 금오공과대학교 kit디자인스튜디오에서 개최됐다.

금오공대 LINC사업단(단장 채석)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학생 및 지도교수, 기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술이전 협약에서는 총 10개 작품이 4천 2백만원 상당의 정액 및 경상기술료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일반·기업연계·융합형 캡스톤 디자인을 비롯해 금오공대 창업동아리에서 탄생한 10개 작품은 모두 대학 LINC사업단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다.

특히 '3D프린터를 활용한 감성조명 키트'를 개발한 신소재공학부 김희나 학생(여, 24세)은 경상기술료 500만원과 연 3%의 로열티를 지급받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도를 맡은 김영형 교수(IT융합학과)는 "대학의 활발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졌다."며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동참



'지구촌 빈곤퇴치 공동 협력'
MOU체결

빈곤퇴치와 세계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심윤종)가 힘을 합쳤다.

지난해 10월 21일, 새마을중앙회 사무실에서 김영식 총장과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 곽호상 산학협력단장, 김동성 kit융합기술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도국의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ICT 융합기반의 선진화 기술을 지원하고, 금오공대의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를 통해 지구촌 새마을운동 연계과제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적자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 공동 과제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오공대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CT 융합기술·교류 활성화 앞장



ICT융합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MOU 체결

창조경제 확산의 일환으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MOU를 체결했다.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 주최로 지난해 12월 3일 금오공대 청운대에서 열린 '2015 ICT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퀄컴 연구소(Qualcomm Institute)와 신시내티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가 참여한 특별강연이 마련됐다. 강연은 해외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퀄컴 연구소의 조석현 박사와 마테오 박사를 비롯해 신시내티대학의 박제형 교수가 참석해 ICT와 교통에 대한 강연과 열에너지를 재활용하는 ICT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및 지자체 ICT관련 담당자, 금오공대 교수와 학생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금오공대 kit융합기술원(센터장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겸무)은 같은 날 퀄컴 연구소와 연구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퀄컴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첨단 통신 및 ICT 융합 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금오공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인적교류 및 공동 연구를 포함해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 및 '국제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군 융·복합 연구(민군 주파수 공유, 스마트 기기의 국방 시스템 활용 등)와 관련된 공동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 | |
|----------|---------------------------------------------------------------------------------------------|
| 학술 연구 기금 |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
| 도서관 기금 |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 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
| 장학 기금 |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
| 외국인장학기금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
| 연구기자재기금 |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
| 시설 확충 기금 |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학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
| 대학 문화 기금 |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
| 대학에 일임 |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
| 기타 |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

발전기금 납부방법

| | |
|----------|----------------------------------------------------------------------------------------------|
| 방문 납부 | 직접 금오공대 기획협력처(본관 601호)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무통장 입금 | 농협은행 785-01-037878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또는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 CMS 자동이체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054-478-708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 | |
|-----------------------|-----------------------------------------------------------------------------------------------|
| 개인 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 법인 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
| 상속재산기부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발전후원의 집 명단

|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
| 1 | 금오산성 숯불갈비 | 윤숙자 | 457-7500 | 경북 구미시 산업로 224 |
| 2 | 금오산 한우마을 | 김현숙 | 473-8688 |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 7-5 |
| 3 | 황강장어 | 김선미 | 455-4783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3길 15 |
| 4 | 한려수도 | 이갑선 | 457-6900 |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 121 |
| 5 | 한우명가 육림촌 | 조정운 | 474-3030 |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82 |
| 6 | 동구미 자동차정비 | 전기준 | 476-3300 | 경북 구미시 양호동 225-5 |

※ 발전후원의 집은 수익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약정번호 :

| | | |
|---------------------------------------|---------------------------------------------------------------------------------------------------------------------------------------------------------------------------------------------------------------------------------------------------------------------------------------------------------------------------|----------------------------------------------------------------------------------------|
| 기부자명 <input type="checkbox"/> 익명희망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우편물 수령주소 | (우 -) | 연락처 H/P |
| 약정자 구분 |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과) _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_ <input type="checkbox"/> 최경과정 (제 기) |
| | 기업체 회사명 _ | 대표자 _ |
| | 학부모 학생성명 _ | 학부(과) _ |
| 교직원 | | |
| 약정금액 | 금 원 (₩) | 추천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참여방법 |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
| | <input type="checkbox"/>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 |
| | 예금주 | (인/서명) 거래은행 |
| | 계좌번호 | 이체일 1일 15일 |
| | 납입기간 |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
|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서명 | |
| 기부금종류 |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기부금용도 | <input type="checkbox"/> 대학사랑기금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지정장학기금(학과명 :) <input type="checkbox"/> 대학문화기금 <input type="checkbox"/> 시설확충기금 <input type="checkbox"/> 도서관기금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기자재확충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은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자

☑ 서명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자세한 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T.054-478-7080, F.054-478-708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 9 1 7 7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월 별 | 모 금 액 |
|----------------------------|-----------|
| 2015. 8. 1. ~ 2016. 1. 31. | 666,527천원 |

기탁하신 분

(2015. 8. 1. ~ 2016. 1. 31.)

5백만원 이상

삼성전자(주) 대표 권오현
(주)에스에스뉴테크 회장 유해귀
금오공과대학교생활협동조합
IBK기업은행 지점장 최연우
대경테크노 대표 광현근
하영철 교원(건축학부)
(주)보원 부사장 이충노
이규달 동문(토목공학과 '84)
(주)원비이오젠 대표 김원일
금상 대표 원종욱
(주)레이저플렉스 대표 정상구
(주)에스엘테크 대표 서임교
권영희 최고경영자과정 진 동창회장
대유건설(주) 대표 진성례
아인플러스(주) 회장 서봉호
아주전설 대표 신기호
이진덕 교원(사회인프라공학과)
정해 교원(전자공학부)
(주)아이엔티텍 대표 정진형
지·텍(주) 회장 유해귀

1백만원 이상

KT & G상상펀드기금
운영위원회
두산연강재단
(주)에이시스템 대표 최은오
허장욱 교원(기계융합공학과)
이홍희 경상북도의원
(주)디에이비피 대표 김경민
(주)진성전자 대표 서길호
변광영
아성 대표 최상관
이재원 교무처장(응용수학과)
이재준 산업·교육대학원장(사회인프라공학과)
(주)CRD 대표 정민선
특허법인 신태양 대표 이선택
황태진
지엠테크(주) 대표 백기철
곽호상 산학협력단장(기계시스템공학과)
최경과정총장배곧포대회
지광환 입학관리본부장(화학소재융합학부)
고분자공학과 동문회일동
조성환 동문(산업시스템공학전공 '01)
박해욱 동문(대학원 산업공학과 '13)
배진현 동문(대학원 산업공학과 '15)
서성묵 동문(산업시스템공학과 '09)
여현동 동문(대학원 산업공학과 '15)
이효식 동문(대학원 산업공학과 '14)
최만웅 동문(대학원 산업공학과 '13)
(주)세종임대주택 대표 이인경
(주)아성사 대표 김상희
(주)에스티엔비 대표 김유철
금오M.T 대표 정연근
김귀곤 교원(경영학과)
김상호 교원(산업공학부)
김진태 최경과정 2기

1백만원 이상

김진한 교원(경영학과)
박말기 구미시청
박제철 K-RC교육원장(화학소재융합학부)
백훈기 직원(신소재공학부)
성도산업(주) 대표 김재우
손창식 직원(도서관)
수성 F.L 대표 김경미
신아하이텍 대표 장명수
임찬호 3D프린팅미클
장성식 동문(건축공학과 '85)
제일정보통신(주) 대표 송원호(최경과정 18기)
홍성표로메카트로닉스사업단장(기계시스템공학과)
황정주 교원(기계시스템공학과)

50만원 이상

신동아인쇄기획 대표 김진순
이상해 동문(대학원 경영학과 '15)
김육란 직원(교무처)
강전학 데이터룸(전산전공 '80)
신경욱 kit창의교육원장(전자공학부)
이승희 기획협력처장(경영학과)
최용호 동문(기계공학과 '81)
배효근 직원(사무국)
최경과정 제25기일동
최명익 동문(고분자공학과 '90)

50만원 미만

임현주 직원
수성 F.L 대표 김경미
김경훈 교원(기계공학과)
김기수 직원(기획협력처)
김종필 직원(학생처)
김천일 직원(사무국)
박금득 직원(K-CDP)
박동호 석·박사원우회
박상희 취업지원본부장(기계공학과)
방대석 학생처장(화학소재융합학부)
유희정 대표 임춘미
유기영 직원(사무국)
윤봉길 인동대학교
이영순 교원(전자공학부)
정우진 행정실장(K-RC교육원)
전병광 직원(입학관리본부)
최경과정24기원우회일동
최영규 직원(공동심실습관)
최홍숙 직원(학생처)
김영복 석·박사원우회
김창동 석·박사원우회
변규현 석·박사원우회
이규식 석·박사원우회

50만원 미만

이은숙 석·박사원우회
임선동 석·박사원우회
정지인 석·박사원우회
지무권 석·박사원우회
하남연 석·박사원우회
홍은정 석·박사원우회
황명희 석·박사원우회
황상인 석·박사원우회
손혜정 직원(사무국)
김영원 직원(응용수학과)
박준서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정재훈 직원(기획협력처)
신영표 중앙교육연수원
양병삼 학부모(전자공학부 '12양정호)
조병태 직원
심민섭 동문(산업경영학과 '96)
김도형 동문(환경공학전공 '98)
서홍진 직원(정보전산원)
안영철 직원(사무국)
한희중 직원(사무국)
강문규 동문(재료공학전공 '95)
김민수 동문(재료공학전공 '95)
김성근 동문(고분자공학과 '93)
손지하 동문(재료공학전공 '97)
이만 동문(재료공학전공 '93)
정치영 동문(대학원 디스플레이공학과 '05)
강태구 직원(사무국)
이상현 직원(사무국)
한상규 직원(기획협력처)
남상규 직원(교무처)
배호균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안태욱 동문(컴퓨터공학과 '94)
진종영 동문(컴퓨터공학과 '93)
최현주 학부모(메디컬IT융합공학과 '12윤지호)
구재성 구미시민
김국조 직원(정보전산원)
김동성 교원(전자공학부)
김민정 구미시민
김사균 구미시민
김재석 구미시민
김태훈 구미시민
나환식 구미시민
도기화 구미시민
류명환 구미시민
류태은 구미시민
박준이 구미시민
서성은 구미시민
송영삼 구미시민
심보민 구미시민
심선영 구미시민
왕주성 구미시민
유원길 구미시민
이영환 구미시민
임유경 구미시민
장지연 구미시민
정기원 구미시민
정창섭 동문(전자공학부 '03)
조현준 구미시민
전영환 구미시민
황래혁 구미시민